

왕실의 권력 다툼에 지아비 무덤 떠나가고...



중종 1계비 장경왕후 - 희릉

우리 유목민이 아니다. 불박이 장풍처럼 태어나서 100리 밖 세상을 모르고 죽는 이도 있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훈계를 듣고 자랐다. 그래서 정착민의 이사는 괴롭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쟁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지럽다. 결망 하나 결머지면 그만인 수행자의 삶이 부럽다. 부럽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무수한 잡동사니 번뇌들과 함께 산다. 도시에 살면서 맑게는 수십 차례, 적게는 대여섯 번 이사를 하지 않은 이가 누가 있으랴. 정들었던 이웃과의 결별도 서운하지만 이삿짐 싸고 풀고 하는 게 가장 싫다. 이사 가는 날, 포장 이삿짐센터에 맡기고 훌쩍 여행을 떠나는 이도 있다.



제향(위), 제향 후 점심을 먹는 후손들(아래).

산 자가 앉은 자리를 옮기는 것도 이런데 하물며 죽은 자가 누운 자리를 옮길 뎨 어떻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살아 있는 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무덤이 파헤쳐지고 새로운 땅에 묻힌다. 대권을 잡기 위해 조상묘를 옮겼다는 소문이 지금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뒷얘기도 있다.

희릉은 11대 중종의 제1계비 장경왕후(1491~1515) 윤씨의 능이다. 윤씨는 원비 단경왕후 신씨가 왕비 자리에서 7일만에 폐위되어 왕비로 봉해졌다. 윤씨는 8년간 왕비로 있다가 세자(인종)를 낳고 산후병으로 7일만에 승하했다. 춘추 25세였다.

중종과의 금슬도 좋았다. 왕후의 병이 위중하자 왕은 문병을 와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묻자, '은혜 입음이 지극히 크운데 드릴 말씀이 없사옵나이다' 라고 답하며 눈물만 흘렸다. 다음 날 병이 더욱 심해지자 부축을 받아 글을 써서 왕에게 올렸다. '지나여름 임신 중 꿈에 선인이 나타나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역명(億命)이라 지으라고 했습니다. 벽에 기록해 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중종이 벽을 보니 과연 역명이란 글자가 있었다. 장경왕후가 죽자 중종은 특별히 흰 상복을 입고 애도했다.' (국상을 당해도 왕은 흰 상복을 입지 않는다!) 찢덩이를 두고 떠나는 어미의 비통한 심정을 누가 알까. 장수를 바란 어머니의 간절한 서원도 보람이 없었다. 7일만에 어미를 잃은 아들(인종)은 31세에 죽었다. 인종은 독살되었다는 아사가 파다하다.

장경왕후의 인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왕후는 자애롭고 총명하며 어질고 효성이 깊다. 덕이 후하고 공경하는 성품이 특출하여 왕이 어진 정치를 펼치는데 보탬이 컸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만 배풀고 보답함을 아끼어 세상에 계신지 겨우 춘추 25세에 돌아가셨으니 이 무슨 이치인가. 그것이 천명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겠노라. 천명이 이렇게도 가혹하고 잔인한가. 아, 애통하도다!"

왕후가 죽자 그날 즉시 죄의정 정광필을 삼도감초 호사로 삼아 빈전도감, 국장도감, 산릉도감이 설치되었다. 택지와 풍수도가 올라오자 중종은 자신의 수릉과 더불어 쌍릉터를 원했다. 그래서 현릉(3대 태종의 능, 서울 서초구 내곡동)이 있는 대모산 아래 능을 조성하고 능호를 희릉이라 했다. 그런데 중종의 사돈이 된 이조판서 김안로가 세자(인종)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정자를 제거하기 위해 옥사를 일으켰다. 그 중 하나가 희릉 천릉사건이다. 김안로는 정적인 정광필, 남관 등에게 중죄를 주려고 희릉 봉분 밑에 큰 돌이 깔려 있는데 그대로 공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큰 돌이 무덤 아래 깔려 있으면 불길하다고 아뢰어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능역 조성 당시 총호사였던 정광필 이하 지관 및 공사를 담당했던 관리들은 대역 죄인이 되었다. 신분이 박탈되고 그들의 자손까지 옥에 갇혔다. 결국 능은, 조성된 지 22년 후인 1537년(중종32) 현재 위치로 이장했다. 1544년 중종이 승하하자 유교(遺敎)에 따라 중종의 정릉을 희릉 옆에 조성하고 정자국을 왕릉과 왕비릉 중간으로 옮겼다. 능호를 정릉으로 고쳤다. 그런데 제1계비와 함께 묻혀 있는 풀을 잡지 못한 문정왕후의 주장으로 중종의 무덤만 지금의 정릉(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옮겼다. 남은 무덤은 다시 희릉으로 부르게 되었다. 죽어서 무덤이 옮겨지고 곁에 있던 지아비의 무덤은 떠나가고 능의 이름이 바뀌었다. 복잡하고 심란한 사태다. 산사람 잡으려고 죽은 자를 파헤치고 문패를 이것저것 바꿔 단 것이 희릉이다.



중종의 제1계비 장경왕후가 묻힌 희릉에서 후손들이 예를 올리고 있다.

춘추 25세에 인종 출산 후 7일만에 산후병으로 애통한 죽음 중종과 나란히 묻혔다가 문정왕후의 주장으로 홀로 남겨져

로 고쳤다. 그런데 제1계비와 함께 묻혀 있는 풀을 잡지 못한 문정왕후의 주장으로 중종의 무덤만 지금의 정릉(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옮겼다. 남은 무덤은 다시 희릉으로 부르게 되었다. 죽어서 무덤이 옮겨지고 곁에 있던 지아비의 무덤은 떠나가고 능의 이름이 바뀌었다. 복잡하고 심란한 사태다. 산사람 잡으려고 죽은 자를 파헤치고 문패를 이것저것 바꿔 단 것이 희릉이다.

장경왕후는 1491년(성종22) 영동남부사 윤여필의 딸로 태어났다. 본관은 파평으로 8세 때 어머니를 여리고 외종모인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에 의해 양육되었다. 1506년(중종 원년) 궁중에 들어가 처음에 숙의에 봉해지고 단경왕후가 폐위되어 쫓겨나자 다음 해 왕비가 책봉되었다.

월산대군 부인 박씨는 어머니가 없는 연산군을 키운 장본인이다. 그러나 역사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실록에는 "이런 얘기가 전해진다"라고 간접 인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양 온갖 사극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있다.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절묘한 호재이기 때문이다.

중종반정의 주역은 성종이 총애하던 문신 성회안이었다. 그는 벼슬이 이조좌랑까지 올랐는데, 연산군이 망원정에서 음탕한 연회를 즐기는 것을 비판하는 시를 지어 올렸다가 종9품 부사옹(5위에 소속된 무관 벼슬)이라는 미관직으로 좌천됐다.

또 다른 주역인 박원중은 무인으로 그의 누이(박씨 부인)가 월산대군(성종의 친형)의 후실이였다. 그런데 연산군은 천하절세이었던 박씨 부인을 궁으로 불러들여 겁탈했다. 정조가 더럽혀진 박씨 부인은 자결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씨 부인은 연산군에게 큰 어머니(월산대군) 때문이었다. 이 사건으로 박원중은 연산군에 깊은 원한을 품었는데, 이런 감정이 연산군에게 알려지면서 경기도 관찰사였던 박원중의 벼슬을 거두어 버렸다. 그 후 박원중은 반정의 중심에 선다.

누군가가 조작한 것이다. 이러한 설이 있다는 이야기를 쓰면서 마치 사실인양 기록한 것이다. 연산군이 큰 어머니 월산대군 부인을 강간했다? 연산의 패륜에 치를 떨 만하다. 연산의 황음방탕을 제시하기에 이보다 좋은 소재가 없다. 그러나 당시 월산대군 부인 박씨는 풍으로 묻혀 누워있었다. 시름시름

않다가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불심이 돈독한 것도 이런 비화를 만들어낸 요인 중 하나다. 책봉의 공훈이 휘말리는 가운데 박씨는 수십 년을 흠여미로 지내며 불교를 받들고 일찍 죽은 남편 이정의 묘 곁에 흠복사를 세웠다. 명복을 비느라 자주 그 절에 가므로 사람들이 눈총을 보았다.

박원중은 연산군보다 아홉 살 많다. 그의 누이(박씨 부인)를 돌볼 나이이면, 족히 50대는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겁탈을 연관시킨 이야기 구성이 끔찍하다. 박원중의 반정 가담, 반정의 정당성을 트론편하게 하려고 인정한 여인을 망가지게 했다. 지금도 여러 드라마에서는 박씨를 음탕하고 풍만한 여인으로 등장시킨다. 자식이 없었던 박씨는 친자식처럼 연산을 키우고 이어서 장경왕후를 키웠다. 그들에겐 어머니다. 권력을 위해, 재미를 위해, 영통한 오해에 시달리고 있는 박씨를 생각하면, 무덤에 누운 왕후가 통곡할 일이다.

희릉(禧陵)은

서삼릉 능역 안에 있다. 봉분에 병풍처럼 없이 난간석만 두면 단릉으로 조선 전기의 능제를 따랐다. 사적 제200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38-4, 면적 21만7701㎡ (6만5970평).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고무신코 만행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방한용털신 발마춤형 제작

- 가격: 6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방한용부츠

- 가격: 120,000원
- 규격: 220-250mm
- 색상: 회색, 검정

조각무명 최고의 선물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자연색

사계절단화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지압감량 발압특허권41435

- 가격: 10,000원
- 색상: 회색, 검정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원광사 051)636-7019, 대구·연꽃세상 053)426-7300, 전주·상운각 063)274-6639, 광주·불교서원 062)226-3056, 화진승복 062)228-2870, 서울·부산승복 02)738-8407, 대전·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제주·김윤경승복 064)724-7969, 충북(충주) 원신사 불교점 043)846-9091, 경북(예천) 첫타불교점 054)655-2525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 수록내용

- ▶ 금합이야기
- ▶ 설기가 맘을 안들어요
- ▶ 딸이 미처가고 있어요
- ▶ 외제출이야기
- ▶ 바퀴 놓고 생각하기
- ▶ 실수의 흔적
- ▶ 처제와의 불륜
- ▶ 육체란 무엇인가?
- ▶ 입시이야기
- ▶ 성형수술이야기
- ▶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 ▶ 세번 결혼한 검사님
- ▶ 언덕과 세스의 비밀
- ▶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 ▶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 ▶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 ▶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 ▶ 노년기의 사랑이야기
- ▶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 ▶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 ▶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 ▶ 생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 안 예뻐지면
- ▶ 피부 보는 법
- ▶ 탈모 보는 법
- ▶ 시(時)로 보는 건강
- ▶ 비파로 손(掌선) 보는 법
- ▶ 심자법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권서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황곡(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